

여성적 생명력을 담은 치유의 상징: 버드나무 A Symbol of Healing with Feminine Vitality: The Willow

권 미 라*

Kowen, Mee Ra

<Abstract>

The symbolism of the willow, with its healing energy for addiction, can be considered in terms of its religious, folkloric, and mythological aspects as in Marion Woodman's book *The Ravaged Bridegroom - Masculinity in Women*. This study concerned the healing process of a female client formerly obsessed with an addiction not separated from the Self. The client grasped the willow as a symbol of female energy and subsequently was reborn with renewed feminine vitality. The female healing energy of the willow connected her abandoned body to her soul. The vitality of the willow empowered the client to heal her animus of addiction, learn what her body wanted from the boundary of life and death, and realize what her soul desired. Her body, through consciousness raising, truly embraced the deity, or Self, which she had struggled unilaterally before to connect with herself. The totality, created by archetypes, meant a deep base of personality, accepted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and transcended the ego.

Keywords : willow, healing energy, addiction, feminine vitality

* 교신저자, 리본심리상담센터 소장,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대학원 아동상담·심리치료전공
(kowen0808@naver.com)

I. 서 론

그 옛날부터 버드나무는 우리 삶의 풍경 속에 함께 한 나무이며, 특히 습지를 좋아해서 물이 있는 곳은 어김없이 버드나무가 군락을 이루었다. 버드나무 가지는 지관이 수맥을 찾을 때에도 사용한다. 또한 버드나무가 기우제에 사용되는 주물의 의미를 지니는 것은 버드나무가 생명이 소생하는 봄을 상징하며 물과 깊은 관계가 있는 특성 때문일 것이다. 버드나무의 뿌리는 물에 녹아있는 질산과 인산을 흡수하여 물을 정화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부터 우물가에 심기도 하고 하천 조경과 치수에도 많이 선호되었다(이상희, 2004).

버드나무의 속명인 라틴어 셀릭스(Salix)는 ‘가깝다’는 뜻의 ‘살(sal)’과 ‘물’이라는 뜻인 ‘리스(lis)’의 합성어로서, 봄이 되면 이러한 겨우내 얼어있던 땅속의 수맥을 찾아 가장먼저 싹을 틔우는 봄의 정령이기도 하다(이창복, 1982). 죽은 듯한 빈 몸으로 겨울을 보내고 다시 싹을 틔워 재생하는 버드나무의 모습은 생명의 순환을 상징한다.

또한 꺾꽂이, 휘문이로 가지만 심어도 쉽게 뿌리내리는 강인한 생명력과 번식력을 가지고 있으며 환경에의 적응력이 뛰어나다. 버드나무 지팡이를 꺾었더니 그것이 나무로 자랐다는 천안 삼거리에 얽힌 설화도 전해진다. 이런 버드나무의 생명력과 번식력이 다산의 상징, 생명의 상징으로 숭배되어 왕 버드나무는 당목, 신목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이창복, 1982).

불교에서는 버들가지가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를 상징한다. 여기에서 버들가지는 실바람에도 나부끼는 듯이 중생의 작은 소망에도 귀 기울이는 자비로 불사의 감로수를 고통받는 중생에게 뿌리는 치유를 상징한다. 버들가지는 원래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움직여 그 소원을 들어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물가에 자생하며 못 식물보다 먼저 눈을 틔우으로써 “물과 생명”을 상징하게 된 버드나무는 불교의 진리를 널리 퍼는 역할을 표상화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고구려 건국 신화 속의 국모신 역할을 하는 유화부인은 버드나무 꽃 부인 혹은 여신이다. 유화의 원형상징은 그 식물의 속성을 바탕으로 한 나무의 원형상징을 포함하고 있는데, 버드나무라는 수종의 특징(물, 봄, 여성적 이미지)들과 결부되면서 물의 신인 하백의 딸로 설정되었고, 나무의 원형상징인 재생, 생명력과 같은 신성성과 더불어 번식력, 다산성, 풍요와 같은 모성적 성격이 강화되었다(최혜영, 2008). 모성상징으로서의 나무는 모든 죽음과 삶의 기능, 즉 생명의 나무, 십자가로서의 죽음과 부활의 나무의 상징을 포함한다(이부영, 1995) 즉 고구려 건국신화에서 유화의 존재는 버드나무의 인격으로, 양(陽)의 대극적 측면인 음(陰)으로 물을 다스려 풍요를 보장하는 여성 즉 모성의 생명 원리와 결부된다(이윤희, 2004).

버드나무 뿐 만아니라 모든 나무는 뿌리를 지하세계에 두고 물과 양분을 빨아들이며 빛

과 공기를 얻어 통합적 성장을 이룬다. 이러한 나무, 특히 버드나무의 상징을 통해 땅과 하늘, 의식과 무의식, 또는 영과 육체를 통합하려는 내담자의 치유의 과정을 우드만의 저서 <The Ravage Bridgeroom - Masculinity in Woman>(Woodman, 1990) 속의 여성 내담자 사례에서도 접할 수 있다. 나무는 자기(Self)와 자아(ego) 사이의 축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 축이 있기 때문에 자기(Self)와 자아(ego) 사이에 의사소통이 가능하고(Kast, 1994), 자기(Self)와 자아(ego)의 분리 후에 축을 형성하고 그 축을 통한 의사소통으로 인해 삶에 대한 열망과 충동을 자기(Self)로부터 가져올 수 있다(Edinger, 1972).

본 연구는 우드만의 저서 <The Ravage Bridegroom - Masculinity in Woman>(Woodman, 1990)에 소개된 자기(Self)와 분리되지 않은 아니무스적 중독에 사로잡힌 한 여성 내담자가 버드나무의 이미지를 연상하며 중독을 치유하는 과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중독자가 중독으로부터 자신의 감각을 되찾도록 도와주려면 물을 낙원의 젖으로 바꾸는 마법같은 착각을 이해해야 한다. 그들이 감각을 되찾았을 때 그것이 단순한 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Woodman, 1990). 물에서 비롯되는 버드나무의 생명력을 통해 중독의 아니무스를 치유하고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자신의 육체가 원하는 것을 배우게 되며 그것은 곧 나의 영혼(soul)이 원하는 것임을 내담자는 깨닫게 된다. 내담 여성은 나무 혹은 수목이라는 존재 안에서 우주적인 이치와 개인적인 경험을 일깨우고 버드나무의 다양한 상상과 연상을 통해 자신의 영과 육을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이윤희, 2004).

용 분석가이며 임상가인 우드만은 중독과 섭식장애등의 여성적 이슈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였으며 사이키와 소마의 관계에 대한 신경생물학적 접근의 이해도 시도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여성 원리입니다 수용적인 자세, 영혼, 마음과 같은 것들이 중요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여성성은 인간의 존재, 즉 깊고 느린 내면의 세계를 지탱하는 에너지입니다” 우드만은 <여성, 파워, 영혼>이라는 연설에서 여성성의 원리가 부재하는 현대사회 현상을 명확하게 지적하면서 위와 같이 이야기하였다.“그녀가 나와의 스킨쉽을 시도한 이유.” 채널에스. 2015년2월3일 수정, 2017년11월5일 접속, <http://m.ch.yes24.com/Article/View/16861>. 우드만 연설의 핵심은 여성성 자체가 아니라 여성적 ‘에너지’이다. 육화된 생명력을 붙여넣는 에너지의 상징으로 내담자는 버드나무를 육체에 이미지화하면서 여성적 생명력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러한 중독 내담자의 치유의 과정과 함께, 치유의 에너지를 담고 있는 버드나무의 상징성을 종교적 측면과 민속학적, 신화적 측면으로 고찰하려 한다.

신체, 본능, 감각으로부터 떨어져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없는 현대인의 심신의 상태는 정신과 신체 또는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 또는 균형을 찾는 것에 실패할 수 있다(Jung, 1984/2001). 이러한 상태를 지속하면 몸과 정신의 에너지의 흐름이 막혀 신체화 증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많은 내담자들이 꿈 또는 상상, 모래놀이치료 작업을 통해 정신의 에너지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신체 감각과 정서가 되살아나는 신성한 경험을 하게 된다

(장미경, 2107). 아마도 우드만이 현대인들에게 회복하기를 바라는 관계하는 여성성의 원리를 통해 내면과의 진정한 소통의 관계를 맺게 되는 순간이 아닐까 여겨지며 이러한 여성적 원리를 버드나무를 통해 상징화한 우드만의 내담자로부터 본 상징 연구는 여정을 시작한다.

II. 버드나무의 특성

1. 버드나무의 생태학적 특성

버드나무과에 속하는 낙엽교목으로 높이가 20m에 달하는 큰 나무로서 꽃은 4월에 피고, 열매는 5월에 익는다. 전국 각처에서 자라며 특히 냇가에서 흔히 자라고 만주와 일본에 분포한다. 학명은 *Salix koreensis* ANDERSS이다. 버드나무의 속명 셀릭스(*Salix*)도 라틴어로 가깝다'는 뜻의 살(*sal*)과 '물'이라는 뜻의 리스(*lis*)의 합성어로 버드나무가 물을 좋아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속명이다. 수피는 검은 갈색이고 가지는 황록색이며 윈줄기에서 잘 떨어진다. 따라서 버드나무에 올라갈 때는 큰 가지라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이창복, 버드나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5년 수정, 2018년3월2일 접속, <http://encykorea.aks.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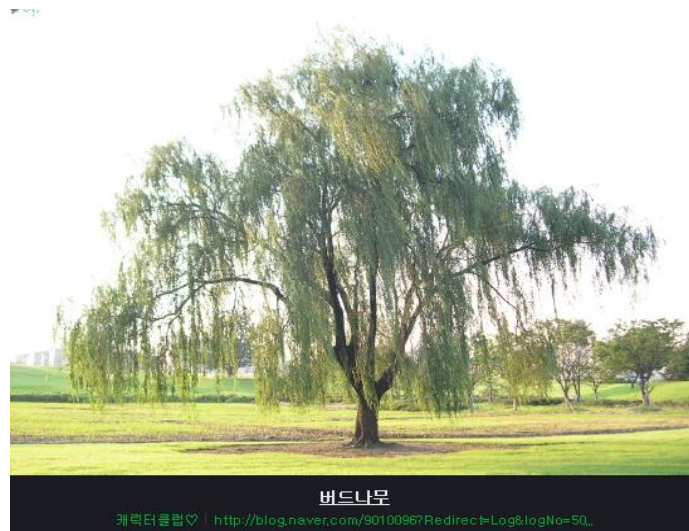


그림 1. 버드나무

출처. “버드나무.”캐릭터클럽.2016년7월8일 수정, 2017년11월5일 접속, <http://blog.naver.com/9010096?Redirect=Log&logNo=50>.

잎은 어긋나고 피침형 또는 이와 비슷하고, 양끝이 좁아지고 위끝은 길게 뽕족하며 가장 자리에 안으로 굽은 톱니가 있다. 표면에는 털이 없고 뒷면 주맥에 털이 있으나 곧 떨어지며 동아에는 짧은 털이 있다. 꽃은 암·수가 딴 그루에 달리지만 때로 같은 나무에 달리는 수도 있다. 수꽃 화수는 길이 1, 2cm이며 화서축에 털이 있다. 포는 타원형이며 명주실 같은 털이 밀생한다. 수술은 2개씩이고 같은 수의 밀선이 있으며 수술대 밑에 털이 있다(이창복, 1982).

썩은 버드나무의 원줄기는 물기를 머금고 있어서 캄캄할 때 빛이 난다. 시골사람들은 이것을 도깨비불이라고 하며 무서워하기도 했다. 따라서 산골에서 도깨비가 나온다고 알려진 곳은 습지에서 버드나무가 무성한 숲일 때가 많다. 그만큼 친수성 수목이라 하겠다(이창복, 1982). 이러한 물의 생명력을 가진 연약하고 부드러운 가지를 버들의 특징으로 보며, ‘부들부들’ 하다는 나뭇가지의 특성에서 버드나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고도 한다(“이창복, 버드나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5년 수정, 2018년3월2일 접속, <http://encykorea.aks.ac.kr/>).

2. 버드나무의 용도

1) 기우의 주물

농경 사회에서 비는 한 해의 농사를 결정짓는 큰 요소이다. 특히 비는 인간의 힘으로 조절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기도 하다. 농경에 특히 필요한 비가 봄과 여름에 내릴 때에는 먼저 바람이 부는 경우가 많다. 바람이 부는 전조에는 큰 나무의 가지와 잎이 흔들린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버드나무의 특징이 인간의 기우의 염원을 담아 기우(祈雨)의 주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버들가지가 봄을 상징하며 만물의 생기를 뜻하는 데에는 버드나무의 친수성이 바탕이 됨으로써, 기우제 때 비를 부르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것은 지관(地官)이 우물 팔 자리를 찾을 때 버드나무 가지를 사용하는 사실과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우리 풍속에서 버들가지는 기우제에 사용되는 주술적인 물건의 의미를 지닌다(이상희, 2004). 아마도 겨울의 얼어붙은 대지에서 이른 봄에 가장 먼저 물과 바람의 기운으로 생명을 싹 틔우는 버들가지의 특징이 기우의 주물로써의 쓰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2) 정화와 치수의 기능

버드나무는 우물가에 잘 심는 나무다. 우물가에 심으면 적당히 그늘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무성하게 뻗은 잔뿌리가 우물물을 정화해주는 작용도 한다. 버드나무의 뿌리는 물에 녹아있는 질산과 인산을 흡수하여 물을 맑게 한다고 한다.

치수의 기능으로 버드나무를 이용한 예를 수원 화성에서도 볼 수 있다. 정조는 화성을 축성한 다음 수원천변에 버드나무를 심어 제방을 튼튼하게 하고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었다고 한다. 수원을 ‘유경’이라 부르고, 수원천을 ‘버드내’라 칭하는 유래도 여기에 있다. 수원의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조는 물길을 내고 저수지를 파서 농지를 만든 후에 버드나무를 심었다. 버드나무의 무성한 잔뿌리는 치수와 하천 복원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창복, 버드나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5년 수정, 2018년3월2일 접속, <http://encykorea.aks.ac.kr/>).

수원 화성의 정자인 방화수류정은 ‘꽃을 쫓고 버드나무를 따라 노닌다’라는 뜻으로 주변 감시와 지휘라는 군사적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화성의 대표적인 아름다운 건축물이다. 독특한 지붕형태와 내려다보이는 연못의 버드나무가 조화를 이루는 곳이다(“양평두물머리, 이야기 속으로.” 산 이야기. 2018년6월12일 수정, 2018년9월11일 접속, <https://blog.naver.com/singleway/221297493561>).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의 이념에도 이와 같은 조화가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며 영정조 시대의 부흥도 이와 함께 하였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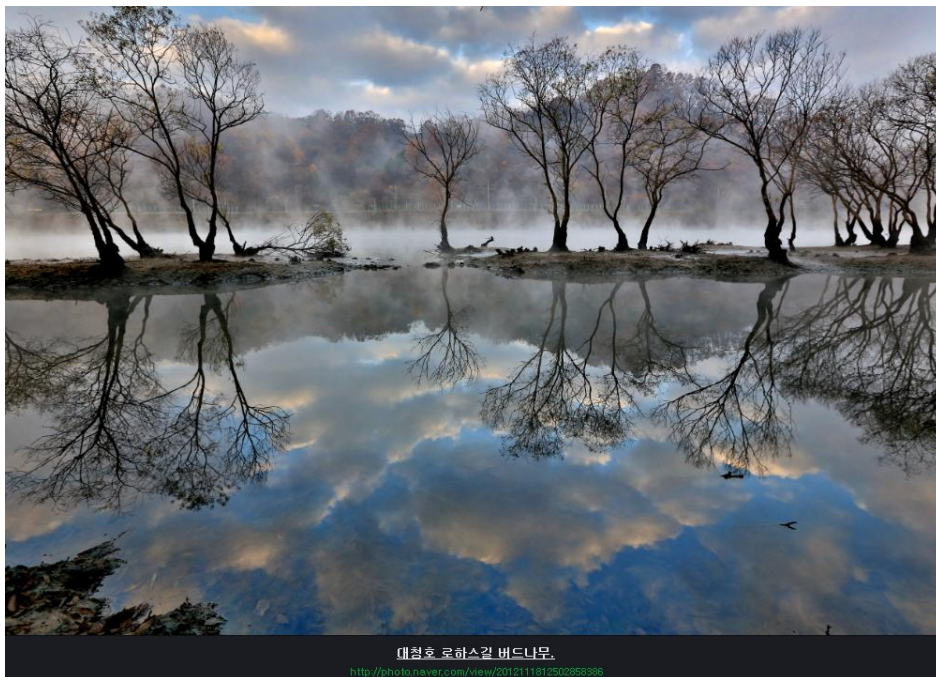


그림 2. 대청호 로하스길 버드나무

출처. “대청호 로하스길 버드나무.” 2016년2월12일 수정, 2017년11월10일 접속, <http://photo.naver.com/view/2012000812502858386>.



그림 3. 화성, 방화수류정

출처. “화성, 방화수류정.” 2014년6월20일 수정, 2017년11월3일 접속, <http://blog.naver.com/kairai?Redirect=ghktjd>.

3) 민간요법 및 약리기능

웁오른 데, 고열, 간염, 고혈압, 신장병, 기관지염, 치통, 종기, 폐경 등의 증상을 다스리는 데 민간요법으로 사용하였다고 전해진다. 유지(柳枝)라고 부르는 가지와 유엽(柳葉)이라고 불리는 잎은 봄과 여름에 채취하여 햇볕에 말려서 쓴다고 한다. 웁오른 데, 고열, 간염, 혈압 높은 데, 신장병, 기관지염에 말린 것 20g을 물 700ml에 넣고 달여서 마신다. 치통, 종기에 달여서 찜질을 하기도 한다. 유화(柳花), 버드나무 꽃은 봄에 채취하여 햇볕에 말려서 폐경, 치통에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또한 버드나무껍질은 이뇨제로 쓰이고 고약을 만드는 재료로도 사용되었다(이창복, 1982).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해열진통제인 아스피린의 원료 물질도 버드나무 뿌리에서 추출



그림 4. 버드나무 껍질 / 버드나무 껍질 효능

출처. “버드나무껍질의 효능.” 군위대추회계농원. 2014년4월5일 수정, 2017년10월 20일 접속, <http://blog.naver.com/pshkt3076?Redirect=Log>.



그림 5. 버드나무 수꽃과 수꽃 봉오리

출처. “버드나무 수꽃과 수꽃 봉오리.” 약초도감. 2000년3월28일 수정, 2017년 10월20일 접속, <http://terms.naver.com/entry.nhn?dicId=1995312>

되었다고 한다. 근래에는 해열진통 효과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약으로 사용되고 있다.

Ⅲ. 우드만 사례에서의 버드나무의 상징성

우드만의 저서 <The Ravage Bridgeroom - Masculinity in Woman>(Woodman, 1990)는 여성 융 분석가인 메리언 우드만에게 매료되기에 충분하였다. 그녀는 융분석가로 주로 여성의 중독에 대한 임상과 연구를 깊이 있게 다루었으며 여성성의 원리에 대한 저술과 강연에도 많은 열정을 보여주었다. 우연히 연구자는 우드만의 책의 한 부분을 수업 중에 번역하여 발표하게 되었는데 중독과 관련된 여성내담자는 사례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었다. 그녀는 섭식 장애를 가진 여성내담자로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우드만과의 분석을 통해 자신의 몸을 버드나무의 상징을 이미지화하면서 치유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연구자는 무의식적으로 주변에서 버드나무를 찾기 시작했으며 도시의 삶 속에서는 생각처럼 쉽게 버드나무를 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보다 예전에 우리 삶 속에서는 훨씬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나무였을 것이다. 이른 봄, 어느 날 달리는 차 창 밖으로 잔잔한 봄바람에 유일하게 흔들리고 있는 버드나무를 보게 되었다. 잔잔한 봄바람에 다른 나무들은 미동도 보이지 않았으나 버드나무의 여린 잎만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으며 그 흔

들림에 한참을 머무르게 하였다. 바람과 버드나무의 여린 잎이 마치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의 관계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듯하였다. 잔잔한 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가 온 몸으로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의 미세한 떨림을 가지 끝의 나뭇잎으로 느껴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였다 그 순간의 작은 감동이 연구자로 하여금 버드나무의 상징성에 대한 탐구의 여정을 인도하였다.

이제 나는 내 몸으로부터 이미지를 가져와서 규칙적으로 요가를 한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 버드나무의 이미지에 집중한다. 나는 노력하고 있다. 나의 척추에 숨을 들이쉬면서 버드나무에도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그리고 내 몸이 버드나무의 생명력을 받아 함께 느끼는 것에 놀라고 감격한다. 이런 경험을 통해 나는 대지와 연결되어지고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 내가 죽음의 벽에 부딪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을 이해했을지는 모르겠다(Woodman, 1990, p. 61, line 7- line 13).

내담 여성은 버드나무를 몸속의 이미지로 상징화하고 비로소 대지의 어머니와 관계한다. 그리고 다시 탄생한다. 그녀가 대지인 어머니와 자신을 연결하여 뿌리 내리고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노이먼(1974/2007)은 모든 생명을 잉태하는 위대한 대지의 어머니는 모든 초목의 어머니라고 하였으며 이 초목의 상징성 중심에 나무가 있다고 하였다. 결실을 맺게 하고 숲의 많은 생명의 은신처가 되어주는 나무는 여성성을 상징한다. 그녀에게 버드나무는 영혼이 머무르는 곳이며 나무의 정령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모성 안에서 우리는 원형적어머니 즉 자기(Self)를 만남으로서 개인적 어머니와의 분리를 위한 여정을 가게 되고 자아 발달을 성취한다(이나경, 2015). 안전한 모성의 영역을 박탈당한 내담자는 모성 콤플렉스로부터 압도되어 단순히 도움을 받지 못 하는 측면에 그치지 않고 ‘나쁜 것’ ‘죄 짓는 것’으로 인식된다(Kast, 2010).

나는 내가 먹는 모든 음식들과 내가 걷는 모든 걸음걸이를 인식해야만 한다. 나는 내 육체를 부드럽게 하고 영양분을 섭취하게 하면서 내 몸이 태아의 상태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다. 나를 존재하게 하는 에너지가 그 안에 있다. 내가 부드러워지는 것은 죽음 그 자체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를 배우는 것은 나의 모든 힘을 필요로 한다. 버드나무의 기운을 받아 계속 노력하고 있다. 버드나무의 생명을 불어넣는 에너지를 내 몸에 불어넣어줌으로서 나는 영양분을 섭취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의 수용이 충동을 사라지게 한다(Woodman, 1990, p. 62, line 10-line 16).

자신의 몸이 받아들이는 양분과 그 양분을 소모하는 것에 대한 신체의 자각이 살아나고 있음을 암시하는 구절로 여겨진다. 여성의 몸은 그릇이라는 중심적인 상징성을 가진다. 그

릇으로서의 몸의 경험은 인류 보편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몸인 그릇은 음식을 담기도 하고 담긴 음식을 소화하고 신진대사를 통해 배출하는 통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Neumann, 1974/2007). 섭식장애로 자신의 신체를 파괴적으로 다루었던 내담자는 비로소 버드나무의 생명의 에너지를 받아서 자신을 돌보기 시작한다. 어머니의 몸에 담겨져 있는 태아기로 퇴행하여 모든 창조성의 근원을 회복하기 시작한다.

우드만의 저서 <The Ravage Bridgeroom - Masculinity in Woman>(Woodman, 1990)에 소개된 여성 내담자의 사례로, 그녀는 출생 후 병원의 오류로 신생아가 바뀌게 되면서 친어머니와 일차적인 유대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그 후 다시 친어머니를 찾게 되었으나 어머니에게는 그녀는 친자식이 아니라 모-자녀로의 첫 번째 관계를 맺은, 떠나보낸 아이를 잊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로 인해 이 여성은 자신을 본연의 존재와는 다른 유령 같은 느낌으로 스스로를 인식하였으며, Self에서 분리되지 않은 아니무스의 명령을 받게 되어 완벽주의자의 기준으로 그녀의 육체와 정신을 지배하였다(Woodman, 1990).

자기(Self)는 의식과 무의식을 통틀어 인간의 모든 정신현상 전체를 말하며 즉 ‘하나가 된 인격’이다. 아니무스의 마법으로부터 풀려나서 의식과 무의식이 통합으로 향하면 자기(Self)의 통일성과 전일성을 추구하게 된다(Jung, 1984/2004). 아니무스에 사로잡혀있는 상태는 자신의 판단이 무의식적인 부정적 의견으로 완전히 동화되어있음을 전혀 모르는 상태이므로 이러한 사로잡힘의 상태를 깨닫는 것이 자기실현의 중요한 소요이다. 이를 통해 내면세계와 의식세계가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이부영, 2002). 아니무스는 그녀의 억압된 개인 무의식적 내용을 포함하기도 하나 그 뿌리는 여전히 인류의 원형적 조건에 두고 있다(이부영, 2001).

우드만(1990)은 어머니와 자신의 몸을 충분히 접촉하지 못한 유아는 본능을 신뢰하는데 필요한 유대감을 가질 수가 없으며 그로 인해 유아는 어머니의 품안에서 쉴 수 없게 되고 결국 자기 몸 안에서조차 쉴 수 없게 된다고 하였다. 그녀의 어머니와 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녀의 육체는 어떻게 휴식을 취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움직일지에 대해 잃어버렸다. 그녀는 잘못된 제어에서 엄격한 제어, 그리고 제어를 못하는 상태 사이에서 움직이며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중독 패턴을 보였으며, 그 패턴은 먹는 것 중독, 쇼핑 중독, 시간과 돈을 쓰는 방식에서 나타났다. 모든 영역에서 그녀의 인생은 성장과 굶주림 사이에서 동요했다(Woodman, 1990).

그녀를 가장 많이 괴롭힌 것은 그녀가 매년 35파운드의 몸무게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것과 섭식장애로 인한 당뇨 합병증이었다. 그리고 어느 주말에 그녀는 혼수상태에 빠졌으며 병원에서 깨어났다. 그 충격의 결과로 그녀는 그녀 인생의 변화를 상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나는 내가 나의 신체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신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배운 것과 똑같이 나의 영혼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영혼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야 했다(Woodman, 1990, p. 59, line 2-line 8).

이러한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녀는 버드나무를 자신의 몸에 이미지화하고 새로운 치유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녀의 신체가 휴식을 취하며 빛에 대해 열리고 그녀는 신을 자신의 몸 안에서 느낀다. 자신의 몸이 사랑 받는 것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신체 내의 버드나무 이미지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녀는 그 에너지를 콤플렉스에서 꺼내서 의식적인 자아(ego)로 끌어당긴다. 용 어머니는 희생된다(Woodman, 1990, p. 63, line 18-line 22).

자아(ego)는 의식 영역의 중심이며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마음이다. 자아 콤플렉스를 인식하고 극복함으로써 무의식의 내용이 더 깊은 어둠으로 침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von Franz, 1981). 자아의 중요한 역할은 외부세상과 관계를 맺게 하고 자신의 내면 즉 무의식과 관계 맺고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다(이부영, 2002). 더 이상 자아(ego)의 적이 아닌 그것은 Sophia, 즉, 그녀 존재의 생명력인 지혜와의 사랑이 된다(Jung, 1984/2002). Sophia가 한결 같은 치유의 자비가 마법을 펼쳐버리고 그녀를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현실에 열리게 한다.

신체적 어머니로부터의 버림받음이 원형적 어머니가 들어갈 수 있는 정신의 공간을 남겼다. 원형적 어머니를 신뢰하면서 중독자는 배신을 치유하는 은총을 경험한다(Woodman, 1990). 내면의 여성성에 귀 기울이려고 애쓰고 그녀의 신체 안에서 생기는 이미지들을 가지고 놀 때, 그녀는 그녀 자신의 내면의 치유자와 접촉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버드나무의 생명력을 담은 치유의 여성적 에너지가 그녀의 버림받은 육체를 영혼과 연결해줄 것이다.

여성의 중독과 섭식장애 등의 이슈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한 우드만의 사례는 중독의 아니무스를 치유하고 육화된 여성성 본연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치유의 장면을 보여준다. 내담자는 버드나무의 상징성을 육체에 이미지화하면서 여성적 생명력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러한 버드나무의 여성성과 관계하는 생명력의 원형적 요소를 불교문화와 우리나라 건국 신화, 민속 문화 속에서 그 상징성을 고찰한다.

원형은 수 천 년 동안 지속되면서도 항상 새로운 해석을 요구한다. 원형들은 무의식의 확고한 구성 요소들이지만 그 형상은 늘 변한다. 개별적인 하나의 원형을 심혼의 살아있는 의미의 조직에서 끄집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조직이 서로 얽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형들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Jung, 1984/2002, p. 272, line 1-line 5).

용이 논한 것처럼 동서양의 문화적 종교적 차이점을 아우르는 원형의 선형적이고 고태적인 집단 무의식적 측면을 성찰하게 됨을 본 연구의 또 다른 의의라 하겠다.

1. 불교에서 이미지화 된 버드나무의 치유적 상징성

우드만의 내담자는 소피아의 한결같은 자비로, 현실에서 버림받은 그녀의 신체를 지배하는 중독의 아니무스를 치유한다. 용이 언급한 에로스의 네 번째 발달 단계인 소피아는 영원한 여성성으로 연금술의 지혜의 여신이다(Jung, 1985/2004).

남성은 아니마의 분화와 통합을 통해서 육체적, 낭만적 애욕의 수준으로부터 종교적으로 승화된 자비로운 사랑을 거쳐 지혜의 경지에 도달하듯이 여성은 아니무스의 통합을 통하여 본능적인 힘의 충동에서 진취적인 행동과 의미있는 말의 힘을 개발하여 의미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지혜를 매개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한다(이부영, 2001, p. 102, line 1-line 4).

이는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내적 인격의 열등한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개성화의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원형적 측면을 인식하고 개인적 측면을 의식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녀의 중독의 고통이 내면의 지혜를 발견하게 인도하였으며, 그녀를 신체내의 빛에 대한 의식화와 함께 소피아의 한결같은 자비를 정신적으로도 인식하도록 한다.

용은 붓다를 전체성의 상징, 자기원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면 붓다의 외현 현인인 관음보살 또한 전체성으로 이끄는 내적 인격상, 아니마 때로는 아니무스상에 비길 수 있다고 했다. 아마도 관음보살은 마라아보다도 한 단계 높은 소피아의 이름으로 대변되는 아니마의 최고 단계라고도 할 수 있겠다(이부영, 2001).

관세음보살이 현신할 때에는 33종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의 제1위가 양류관음으로 보통은 오른손에 버들가지를 쥐고 왼손은 왼쪽 가슴에 대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양류관음보살이 많이 신봉되었으며, 양류관음이란 양류(楊柳), 즉 버들가지를 손에 들었다고 해서 붙여진 칭호이다. 중생의 소원을 유심히 살펴 이루어지게 해주는 것이 마치 버드나무 가지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것과 같다고 하는 데서 유래된다(이상희, 2004).

주로 바다 위에 떠 있는 연꽃 모양의 대좌 위에 큰 원형 광배를 지고 서 있는 모습으로 많이 표현된다. 선재동자(일명 남순동자)가 무릎 아래서 항상 설법을 듣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민간에서는 아들을 점지해주는 것으로 착각하여 아들을 얻고자 할 때 양류관음보살에게 기도하곤 하였다. 또 좌우의 화병에 버들가지를 꽂고 물가의 바위 위에 앉아있는 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정진희, 버들가지를 든 관음보살-양류관음.” 법보신문. 2017년7월12일 수정, 2017년10월30일 접속, <http://www.beopbo.com>).

불교에서 버들가지가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를 상징한다. 그리고 이 버들가지는 관세음보살의 정병 속에 들어있는 불사의 감로수를 고통받는 중생에게 뿌리는 데도 사용된다. 즉 세상을 구하고자하는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사바세계에 널리 퍼지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물가에 자생하며 못 식물보다 먼저 눈을 띄움으로써 “물과 생명”을 상징하게 된 버드나무는 불교의 진리를 널리 퍼는 역할을 표상화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이상희, 2004). 그녀가 신체에 가했던 강박적인 충동을 그녀를 살릴려는 본능적 에너지, 즉 물과 생명의 여성적 에너지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버드나무의 치유의 상징이 필요했으리라 여겨진다.

불가의 보살상은 관세음보살을 빼고는 모두 남성이라고 한다. 관세음보살도 처음에는 남성이었다가 나중에 여성이 되었다고 한다. 양성과 통하는 통성임과 동시에 남녀를 초월한 초성이라고도 한다. 관음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보는 자이며 관음보살상은 스스로 카르마에서 해탈한 자로서 고통의 굴레에서 해방되고자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이다(이부영, 2001). 신체 안에서 생기는 버드나무의 이미지와 가까워지려고 그녀는 노력하였고, 이를 통해 내면의 여성성을 의식화하고 내면의 치유자, 관세음보살을 만나게 된다. 이로서 그녀의 신체는 의식화를 통해 그전에 그녀가 일방적으로 자신과 연결하려 분투하였던 신 즉 자기(Self)를 진정으로 받아들인다. 이제 비로소 원형들에 의해 그녀의 무의식적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인격의 깊은 기반으로써 전체성이 의식과 무의식을 받아들이고 자아를 초월한다(Woodman,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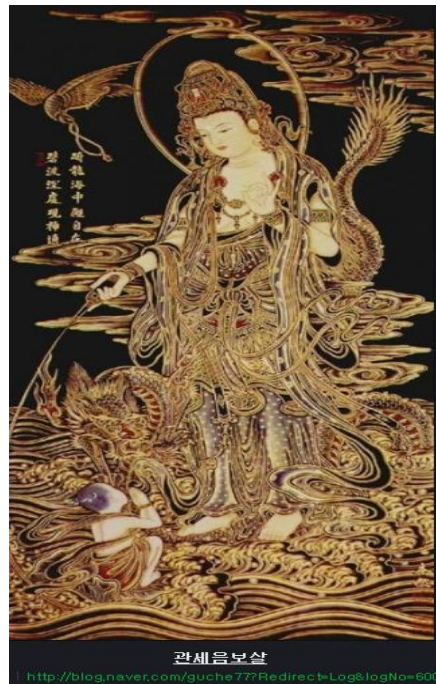


그림 6. 관세음보살

출처. “관세음보살.” 법보신문. 2017년7월12일 수정, 2017년10월30일 접속, <http://www.beopbo.com>.

2. 고구려 건국 신화 속의 ‘유화’의 상징성

우드만(1990)은 본 사례의 분석 과정 중에 육신을 떠난 영(sprit)과 무의식 상태인 신체사

이에서 사랑하는 관계를 찾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분석가의 임무라고 말하였다. 초기 모와의 안전한 애착을 이루지 못한 그녀의 신체는 담아주는 여성성에 대해서 자신을 개방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였을 때 그녀의 아니무스는 전보다 더 신체에 압력을 가하게 된다(Woodman, 1990). 강박적으로 신체를 통제하려는 그녀의 태도가 신체의 왼쪽부분의 경련 또는 뒤틀림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것을 분석하려고함으로써 아직도 신체를 희생시키고 있다.

나는 내가 아무리 내 신체를 통제하려고 노력해도 나의 체장의 기능이 부전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불안해하면 할수록 혈당은 더 통제하기 어려워졌다. 나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 나는 투약, 운동, 다이어트를 미친 듯이 했다. 나는 내가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는 나의 신체속의 두려움을 직면해야한다. 내가 인슐린을 매일 복용해야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다. 나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얼마나 나쁘게 대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을 인정하는 첫 걸음으로 나의 기본적인 불안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나는 나의 내재화된 어머니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잡아먹혀버리는 듯한 느낌을 가졌다(Woodman, 1990, p.65, line 8-line 19).

그녀의 음식에 대한 모든 중독적 상황은 내면의 에너지원인 신과 연결하려는 분투였을 것이다. 그것은 담아주는 모성원형의 사랑에서만 올 수 있음을 그녀는 느끼고 있으며 비로소 그녀는 영혼과 신체를 연결시킨다. 이러한 영혼과 신체를 연결시키는 여성적인 모성원형의 신화소를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에서도 볼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을 지켜온 민족들의 무속 신앙과 창조 신화를 살펴보면 그들에게 버드나무가 여성적 생명력의 원천이다. 또한 버드나무의 상징성이 우리나라의 건국신화 속의 ‘유화’ 신모와도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게 된다(이윤희, 2004). 고구려의 건국설화에서 신모 ‘유화’가 지닌 버드나무 상징은 왕권의 신성함과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건국 신화 속에서 버드나무는 나무 그대로가 아니라 버드나무가 지닌 여성성, 신성성, 매개성의 상징적 기능을 수행하는 ‘유화’라는 인격으로 토착화되어 나타나고, 특히 왕권의 정당성과 신성성을 부여하는데 기여한다. 즉 유화부인으로 나타나는 지혜로운 부인은 왕이 될 여건을 마련하게 되는데, 고대 국가뿐 아니라 봉건사회의 설화에서도 여전히 버드나무 처녀와의 결합이 왕권에 필수적인 요건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이윤희, 2004). 우드만의 사례속 중독의 내담자도 의식과 무의식, 영과 육의 연결에 있어서 버드나무 처녀와의 원형적 결합이 선제적 과제임을 이미지를 통해 암시한다.

천신인 해모수는 후계자가 될 아들을 얻기 위해 유화와 결합하려고 하는데, 이는

유화가 지닌 다산과 풍요의 자질 때문이다. 해모수왕이 웅심연에서 유화 자매를 보고, 좌우를 보며 “저 여자를 얻어서 왕비를 삼으면, 가히 자손을 둘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보면, 수신(수신)의 딸들에게서 ‘물’이 상기시키는 풍요의 코드를 읽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유화라는 이름은 水神의 딸인 그녀가 물 가까이서 더욱 왕성하게 생육하는 버드나무의 신성한 현현이라는 증거이다. 그런데 정당한 혼인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여자의 아버지인 하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백은 변신경쟁을 하여 해모수가 천제의 아들임을 확인하지만, 해모수는 혼인성사 조건이 충족되지 않자 오히려 유화를 버리고 혼자 귀천한다. 신성한 혼인이 파괴되자 하백은 유화를 유기한다. 결국 아무도 욕망을 실현시키지 못하면서, 이 신화에서 신성혼인은 다음 단계를 기다린다. 유화는 강가에 유폐되는데, 금와왕에 의해 별궁에 유폐되었다가 쫓아오는 햇빛으로 상징되는 해모수에 의해 임신하여 알을 낳는다. 그리고 그 알에서는 왕이 될 주몽이 탄생하는데, 어릴 때부터 눈이 밝고 활을 잘 쏘는 등 신통함을 보인다. 비범한 능력이 커갈수록 드러나자, 부여태자의 시샘을 받고 남하하여 새 왕국을 세울 것을 결심한다. 주몽의 남하와 새 왕국의 건설은 활쏘기의 기술, 준마의 획득, 농업의 기반이 되는 종자 전달 등을 담당할 어머니 유화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즉 반농반렵의 유목기마민족인 주몽의 집단이 압록강가로 이주하면서 그곳 토착민인 강하(江河)지배 세력과 융합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토착민은 물의 지배권을 가진 수 신계-하백으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하백의 딸인 유화는 농경문화를 배경으로 곡신과 관계되어 고구려의 풍요신의 개념으로 숭배되었고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유화가 햇빛으로 변신한 해모수와 재결합한다는 설정은 마치 식물의 생육과 번식의 과정을 재연하고 있는 듯하다. 햇빛과 감응하여 알을 낳는 것은, 식물적인 성장과 열매 맺음을 상징한다. 이 생명력은 풍요를 담당하는 곡신적 성격을 나타내게 된다. 또 일단의 유기와 유폐는 식물의 겨우살이라는 잠정적인 죽음을 연상시킨다. 마치 그리스 신화 속에서 페르세포네가 하계와 지상을 오가며 자연의 순환을 암시하듯, 유화도 그 생명원리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성적 결합 후에도 왕통생산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제의의 과정, 즉 강가에 버려지고, 입술이세 번 잘려 능력(말)을 되찾고, 햇빛의 흡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물+절지(버드나무의 折枝)+햇빛의 조건은 바로 버드나무의 생육과 번식의 과정과도 같다. 버드나무 여신과 관련된 제의의 과정을 의인화하여 서사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윤희, 2004, pp.36-37).

곧 신성한 거목과, 신, 인간의 대변자로 신과 교통하는 제정일치시대의 군장, 바로 샤먼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 진다. 이것은 대샤먼의 어머니, 바로 만주족의 신화에서도 볼 수 있는 버드나무 신모의 모습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고구려 건국의 어머니 유화가 가진陰이라는 여성적 상징과 물 그리고 버드나무의 3요소는 우랄알

다이 지방의 버들신모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농경사회의 기반을 닦을 수 있는 곡식 종자를 전해 아들 주몽으로부터 神母라불리웠으며, 고려조까지 나라의 신으로 모셔졌다. 왕국형성기 신화 속의 유화는 보다 적극적으로 인간의 삶 속에서 함께 공감하며 민족의 번영에 힘쓰는 神人적 존재이다. 생존력이 강하고 치유력과 자손번식의 의미를 지닌 버드나무의 여성인격, 즉 고대왕국 창립자의 어머니의 인격으로 고착된 양상을 보인다. 국가의 시조가 되는 부모의 결합은 대칭되는 세계의 우주론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곧 왕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하늘’이라는 수직적인 내부와 ‘수계’라는 수평적인 외부가 확보 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노성환, 1995, p. 129, line 7-line 17).

이처럼 고대 국가의 역사는 건국주의 초월성에 의해, 초월적 존재의 역사 내적 개입에 의해 보증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고대 한반도에서 왕권의 정통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신의 남성적 혈통과 더불어 물에서 발현된 타계 여성의 혈통도 함께 계승해야 한다는 상징적 논리라 볼 수 있다. 유화는 천상의 해모수와 지상의 주몽을 연결하는 매개자 역할을 하며 햇빛으로 변신한 해모수와 재결합은 의식성의 탄생을 의미한다. 햇빛과의 감응은 알로 형상화되고 성장과 열매 맺음을 상징한다.

사례에서 우드만은 폭군과 같은 육신과 폭군과 같은 영(spirit)사이의 힘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그것을 내담자가 의식적 태도로 해결하려하면 할수록 무의식과 멀어지게 된다. 이는 용이 정신적 에너지가 무의식에서 떨어져 나가면 아니무스 원형을 활성화 한다고 논한 것과 그 의미를 함께 한다(이부영, 2001). 무의식의 남자, 즉 아니무스를 의식하지 못하면 어느덧 이것에 사로잡히는 결과를 낳게 된다. 내면의 아니무스에 사로잡히면 여성은 남성화되고 여성성은 아니무스에 지배된 의식에서 밀려나게 된다(이부영, 2001). 경험의 실존적 삶으로 전환하려는 그녀의 아니무스가 의식화되면 본능과 분리되는 진정한 용 살해자로 기능한다. 그녀는 내면의 아니무스와 관계 맺을 시간을 주고 본능의 영역을 구분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유화가 소외되고 고통받고 유기되는 순간을 버티고 담아주는 모성원형의 토대로 남아있음을 해낸 것과 같이, 그녀도 그녀의 신체적 모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된 신체와 영(spirit)을 모성원형의 담아주는 원형적 토대위에서 의식화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Neumann, 1973). 왕국 형성기의 유화는 동북아시아 버드나무 여신의 신화보다 적극적으로 인간의 삶 속에서 관계하며 민족의 번영에 힘쓰는 신인적인 존재이다. 강인한 생명력과 치유력, 다산의 의미를 지니는 버드나무의 여성적 인격화가 고대 왕국의 창립자의 모성 원형으로 고착됨을 유화 신모 설화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리 민족의 삶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버드나무는 물, 흙, 여성적 이미지를 지니고 있으며, 건국 설화 속의 ‘유화’라는 이름으로 버드나무의 상징

을 집약하고 있다(이윤희, 2004).

엠마 용은 여성들이 투사를 거두어들이고 자기 마음속의 남성적 요소를 인격 속에 통합시키는 것이야말로 현대 여성들의 과제일 것이라고 말했다(이부영, 2001). 신화 속의 ‘유화’도 우드만 사례속의 ‘그녀’도 그녀들의 아니무스를 의식화하고 통합하여 영과 육체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였을 것이다. 이를 통해 소외와 버림받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통합적인 삶으로의 여성성을 재발견하게 된다.

3. 민속 문화에 나타난 버드나무의 상징성

1) 버드나무의 여성성

버드나무는 전통적으로 여인의 섬세한 아름다움에 비유되었다. 버드나무의 또 다른 말은 버들이다. 가늘고 낭창낭창한 가지가 실바람에도 하늘거리는 것이 버들의 모양새이다. 이런 부드럽고 유연한 모양새는 예로부터 여성미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어졌다(“박상진 교수의 나무이야기.94.” 영남일보. 2001년3월5일 수정, 2017년9월29일 접속, <http://www.yeongnam.com./renew/common/printPage.jsp>). 길고 부드럽고 윤택한 여인의 머리카락을 바람에 나부끼는 버들가지에 비유해서 유발(柳髮)이라고 하며 미인의 눈썹을 버들잎에 비유하여 유미(柳眉) 또는 유엽미(柳葉眉)라고 한다. 당나라 유우석(劉禹錫)의 <심춘시(深春詩)>에 “미인의 눈썹은 새로 핀 버들잎 같다(人眉新柳葉)”라는 구절을 볼 수 있다(이병한 외, 2009).

버드나무 가지에 새로운 눈이 튼 모습을 미인의 눈에 비유하여 유안(柳眼) 또는 유검(柳臉)이라고 한다. 수양버들은 가지가 가늘기 때문에 세류(細柳)라고도 한다. 그 가늘고 나긋나긋한 가지의 모습은 가는 허리에 다리가 쪽 뺀 우아한 팔등신 미인을 연상하게 한다. 그래서 여인의 가는 허리를 유요(柳腰)라고 하여 일찍이 미인의 조건으로 첫손에 꼽기도 하였다(이윤희, 2004).

실날 같은 가지가 휘휘낙락 늘어진 수양버들의 아름다운 자태는 많은 시인들의 사랑을 받았다. 당나라 두보의 <만흥(漫興)>이란 시에 다음 구절이 있다(이병한 외, 2009).

창밖의 수양버들 하늘하늘 隔戶楊柳弱嫋嫋
열다섯살 아가씨의 허리 같구나 恰似十五女兒腰

또 정도전은 삼봉집에 수록된 <영류(詠柳)>라는 시에서 버드나무를 여인에 비유한다(정도전, 1397/2009).

버들가지는 춤추는 허리처럼 가늘다 말하고 皆言舞腰細
또 푸른 버들잎은 긴 눈썹을 닮았다고 이르네 復道翠眉長
거기다 만약 한번 방긋 웃을 수 있다면 若教能一笑
남의 애를 끊는다는 말 이해하리라 應解斷人腸



그림 7. 신윤복의 풍속화

출처. “신윤복의 풍속화.” 고재환, 여행을 떠나요. 2016년7월2
일 수정, 2018년3월5일 접속, <http://blog.naver.com/jawoh?Redirect>.

이상과 같이 많은 시가에서 아름다운 여성성을 버드나무에 비유하며 칭송한다. 당나라의 대표적인 시인인 한유(韓愈)와 백거이(白居易)도 아름다운 기녀를 ‘유지(柳枝)’라고 했다(이병한 외, 2009). 또 사내를 상대로 살아가는 여인을 화류(花柳)라고 한다. 화가들이 그리는 <미인도> 그림에는 흔히 수양버들이 배경으로 나타난다(이현옥 외, 2012). 그것은 아마 미인의 허리를 세류에 비유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또는 늘씬한 미인의 몸매와 수양버들이 서로 잘 어울리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서양에서도 버드나무는 달과 여성성을 상징으로 알려져 있다(Tresidder, 2000/2007). ‘버들같은 (willowy)’이라고 하면 우아하고 날씬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 버드나무에서 느끼는 이미지는 동서양이 비슷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버드나무가 여인의 모습에 비유된 것은 버드나무의 부드러운 속성 때문일 것이다.



그림 8. 늘어진 버드나무 아래에 서 있는 여자

출처. “늘어진 버드나무 아래에 서 있는 여자.” 프랑스 국립 박물관 연합(RMN).
2017년12월1일 수정, 2017년12월11일 접속, [http://terms.naver.com/entry.nhn?](http://terms.naver.com/entry.nhn?cid=24)

또한 버드나무는 강인한 생명력과 번식력을 상징한다. 그것은 버드나무는 물가 어디서나 활착이 쉽고 잘 자란다는 식물적인 특성에 따른 것이다. 《본초강목(本草綱目)》(이시진, 1590/2018)에는 양류는 세로로 두든 옆으로 두든 거꾸로 꽃든 바르게 꽃든 모두 산다고 했다. 이와 같이 버드나무는 비록 그 두부(頭部)와 뿌리를 거꾸로 해서 흙에 꽂아 놓아도 무사히 뿌리가 내려 묘목이 되는 것이다.

여자의 일생을 비유한 속담 중에는 “여자팔자 버드나무팔자”, “버드나무와 여자는 던져 놓아도 산다”라는 버드나무를 소재로 한 구전 속담이 존재한다(“#약초#버드나무#버들강아지.” 산삼나라. 2017년4월23일수정, 2017년12월5일접속, <https://blog.naver.com/yanjinnet/220990340515>). 아마도 예전의 한국의 여인들이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면서 적응적으로 살아야 했던 강인한 생활력을 버드나무의 생명력에 비유한 것이라 하겠다. 즉 여인의 삶 속에는 버드나무처럼 별다른 보호도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뿌리내리고 살아남는 강인한 생명력이 함께 한다. 그래서 버드나무 지팡이를 땅 위에 꽂았더니 그것이 자라나서 훗날 거목이 되었다는 천안삼거리 능수버들 전설이 생겨나기도 하였다(유성호, 2006). 버드나무의 뿌리내림은 토지의 조건, 증식, 일상의 관리, 어느 것이나 자연에 맡겨 두어도 되며, 생육상의 까다로운 조건도 없고 숙련을 요하는 기술도 필요없다. 버드나무는 한번 심

어두면 비옥한 곳이나 메마른 곳이나 그런대로 살아가며 생명력을 유지한다. 버드나무는 강인한 생명력과 번식력을 상징한다(이상희, 2004). 버드나무는 이처럼 여성성을 상징하는 나무로 민속 문화 속에 나타난다.

자연의 음양을 볼 때 남자는 양, 여자는 음으로 나타나는 데, 버드나무는 바로 음의 나무이다. 건국설화 속에서 왕권자는 모두 버드나무 상징을 지닌 여인과 결연하게 된다. 하늘의 지손으로 설정된 왕은 흔히 일광으로 비유되는데, 이 충만한 양기는 음기를 만나야만 조화를 이룬다. 여기서 버드나무는 아이를 낳는 여성성의 상징이면서 또한 하늘과 통하는 성스러움의 상징이 된다(이윤희, 2004, pp. 58-59).

우드만은 여성성의 정서적 중요성에 대해서 “가부장제가 주창하는 힘의 원천이 풍자의 대상이 된 오늘날의 세태를 생각할 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여성 원리입니다. 수용적인 자세, 영혼, 마음과 같은 것이 중요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여성성은 사람사이에서 관계성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라고 주장하였다(“그녀가 나와의 스킨십을 시도한 이유.” 채널에스. 2015년2월3일 수정, 2017년11월5일 접속, <http://m.ch.yes24.com/Article/View/16861>).

우드만 사례 속의 내담 여성도 육신(matter)과 영(spirit)의 연결과 통합을 위해 버드나무를 몸속에 이미지화 하면서 여성적 에너지를 느끼기 시작하였다. 그 여성적 에너지는 그녀를 신과 연결하도록 내어주었으며, 치유는 수용적인 어머니의 사랑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등이 부스러진 콘크리트, 혹은 마른 진흙 그릇의 조각처럼 느껴졌다. 요가에 집중을 하면 내 몸 속에 물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강바닥이었다. 나는 나의 모든 세포들과 함께 강바닥을 흘러가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어느 곳에서 인가 존재하고 있고, 어쩌면 내 인생 또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이미지는 내 마음속의 직관적인 섬광, 통찰과 같았다. 그전의 내 마음은 배아가 착상할 수 없는 메마른 자궁과도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무것도 잉태될 수 없었다(Woodman, 1990, pp.60-61).

섬광과 같은 직관, 마음속의 통찰력이 모성적 컨테이너의 상징인 자궁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내담여성은 위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

나는 아름다운 사랑의 어머니, 인식, 그리고 거룩한 희망.....나는 아주 아름답다. 그리고 전혀 흠이 없는 몸.....나는 각 요소들을 서로 화합하게 하는 매개자. 더운 것은 식히고 마른 것은 적시며, 굳은 것은 부드럽게 한다. 그리고 그 반대로도..... 나

는 사제에게는 율법이요 예언자에게는 말씀이고 현자에게는 조언이다. 나는 죽일 수도 있고 또한 살릴 수 있다. 나의 손을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이부영, 2001, p. 108, line 5-line 11).

위 내용은 중세의 신비적 경서, <떠오르는 새벽의 빛>에서 아니마상, 여성상을 생생하게 표현한 구절로써 폰 프란츠가 인용한 부분이기도 하고 용도 자신의 저서 <융합의 신비>(Jung, 1963/1989)에 일부를 실기도 했다. 이 경서가 편찬되었을 시기에는 종교나 시 등의 정신문화가 크게 융성하였으며, 내면세계의 가치가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정되었다고 폰 프란츠는 전한다(이부영, 2001). 직관과 통찰력을 가진 여성적 에너지를 아니무스의 최고의 단계인 지혜로운 행동가로 추동하는 치유과정을 우드만의 내담자는 선회한다. 아마도 무의식에서 스스로 작동하는 인도자를 따라가는 길일 것이다.

2) 봄의 전령, 버드나무

봄의 도래를 알리는 계절의 전령인 버드나무는 주로 물가에 위치하여 겨우내 얼었던 땅이 풀리면 땅 밑의 물을 흡수하여 주위 식물보다 먼저 싱그러운 싹을 틔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고향의 봄을 알리는 향수의 나무로 인식되어있다(이윤희, 2004). 버드나무 가운데서



그림 9. 버드나무 겨울 잔가지 비교

출처. “버드나무의 겨울 잔가지 비교.” 약초도감. 1995년3월12일 수정, 2017년10월20일 접속,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95312>.

도 깃버들은 이른 봄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개울가에서 회색 솜털 같은 겨울눈을 달고 있다가 형형색색의 꽃술을 터뜨리며 피어나 봄을 알린다. 이 복실복실한 깃버들의 겨울눈을 버들강아지라고 부른다. 꽃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이른 봄에 피어난 버들강아지는 봄의 전령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 버들강아지가 봄의 시작을 알려 주고 어지럽게 날리는 버들 솜은 봄이 가고 있음을 알려 준다(이상희, 2004).

시인 유치환(柳致環)은 버드나무가 봄을 알리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유치환, 1964/1984).

가까이 보아서는 느낄 수 없건만 멀리서 바라보면 파아란 빛깔이 완전히 돌아
어느 나무도 아직껏 깨어날 줄 모르고 장님같이 눈감고 있는데, 수양버들만이 누구
먼저 이렇게 움터 나는 것은 그것이 가늘고 섬세하기에 기다리던 봄기운을 가장 예
민하게 감촉할 수 있는 때문인지도 모른다.

- 유치환, <나는 고독하지 않다> 중에서

위의 글에서도 시인은 수양버들이 봄을 알리는 전령의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버들가지의 예민한 감촉 때문이라고 은유하고 있다. 우드만이 그녀의 사례에서 가장 힘든 과제는 육신을 떠난 영과 무의식의 신체 사이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녀의 신체가 휴식을 취하며, 빛에 대해 열리고 그녀는 신을 자신의 몸 안에서 느낀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알게 되었다(Woodman, 1990, p.61).” 내담여성이 자신의 신체와 가까워지고 예민하게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녀에게도 의식성의 봄이 찾아오고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받고 싶어 하는 존재임을 분석을 통해 알아가게 된다.

노이먼(1974/2007)은 여성의 몸을 담아주는 그릇의 상징성으로 이해하는 것은 신화와 상징의 기본적 개념이며 정신을 담고 있는 몸의 상징성은 현대인에게도 살아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세계와의 관계하는 인류 초기의 보편적 상징성에는 여성적 원리가 담겨져 있다. 이는 모권적 단계에서는 여성성이 남성성을 지배하고, 무의식은 자아와 의식에 우세하게 작용하는 것을 보여준다(Neumann, 1974/2007). 버드나무의 물과 바람에 대한 민감성은 봄을 알리게 되고, 신체에 여성적 민감성이 살아나게 되면 자신을 사랑받고 싶어 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3) 벽사의 상징으로의 버드나무

우리의 조상들은 돌림병이나 예성치 못한 불행이 찾아오면 ‘신의 신판’ 또는 ‘신의 강림’으로 여겨 벽사의 의례를 치루었다, 굿판을 벌이기도하고 탈춤, 강강수월래 등의 표현 예

술의 행위를 통해 벽사의 기원을 나누고 스스로와 신을 위로하기도 했다(장미경, 2015).

버드나무도 예로부터 벽사력을 지닌 것으로 여겨졌다. 여름철에 학질에 걸렸을 경우 환자의 나이 수대로 버들잎을 따서 편지 봉투에 넣은 다음 곁봉에 ‘유생원택 입납(柳生員宅入納)’이라고 써서 이것을 길에 버려둔다. 길을 가던 사람이 그 봉투를 줍거나 밟게 되면 그 사람이 학질을 가져가 대신에 앓게 되어 환자는 병이 낫는다는 것이다. 또 아침 일찍 버드나무 고목에 가서 그 가지로 매듭을 3개 묶어서 만들어 놓고 주문을 외면 학질이 낫는다고도 믿었다(이상희, 2004).

중국 사람들도 버드나무에 신령스러운 기운이 있음을 느끼고 벽사의 힘을 인정했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농서(農書)라고 할 수 있는 5세기경에 나온 《제민요술(齊民要術)》에서는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버드나뭇 가지를 꺾어 문간에 달아두면 백 가지 잡귀신이 들어오지 못 한다”라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월의 버드나무를 꺾어 문 위에 걸어 놓으면 사악한 귀신을 물리칠 수 있다는 설이 있었다(“이창복, 버드나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5년 수정, 2018년3월2일 접속, <http://encykorea.aks.ac.kr/>). 제주도의 무녀는 굿판에서 귀신을 쫓을 때 버드나무 가지를 사용했으며 육지의 농부가 농경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도 버드나무로 신대를 만들어냈다고 한다(한용준, 1980).

버드나무 특히 왕버드나무는 마을 어귀에서 마을을 지키는 ‘당수나무’로 불리우며 신목의 기능을 해왔다. 버드나무가 신목으로 선택된 데에는 병충해에 강한 끈질긴 생명력과 아름다운 모양새, 넓은 그늘의 제공 등의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이다(임봉구, 1986). 또한 버드나무는 그 가지를 거꾸로 꽂아 놓아도 살 정도로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 여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처럼 버드나무의 신성한 벽사력은 치유의 힘을 잉태하고 있으며, 치유의 힘은 새로운 생명으로의 재탄생을 예견한다. 우드만의 사례 속의 많은 여성 내담자들 또한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 즉 자신의 콤플렉스와 마주하게 되며 이러한 알아차림을 통해 내제적인 자신의 힘을 찾아내고 투쟁하게 된다. 이러한 내담자들의 내면의 힘은 본능의 치유와 벽사의 의미를 상담과정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성이 이루지 못하는 벽사와 치유를 무의식이 상징적으로 이루어낸다.

그녀의 병이 그녀 속의 자기(Self)에 대한 긍정을 유발하고 있다. 그녀가 오랜 학대의 부정 콤플렉스와, 무기력의 모성 콤플렉스의 이면을 떠나면서 그녀는 그녀의 은으로 된 성배 속에서 무엇이 훌륭한 지 결정해내는 내면의 처녀를 발견하고 또한 그녀의 아니무스가 그것을 방어할 만큼 강하다는 것도 알아차렸다(Woodman, 1990, p.62, line 17-line 21).

IV. 결 론

본 연구는 우드만의 저서 <The Ravage Bridgeroom - Masculinity in Woman>(Woodman, 1990)에 소개된 자기(Self)와 분리되지 않은 아니무스적 중독에 사로잡힌 한 여성 내담자가 중독을 치유하는 과정을 버드나무의 상징성과 함께 고찰하였다. 나무 혹은 수목이라는 존재 안에서 우주적인 이치와 개인적인 경험을 일깨울 때 우리는 나무에 대한 다양한 상상과 정의를 ‘상징’이라는 용어로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드만(1990)은 여성성의 치유와 재탄생의 상징성을 여성적 ‘에너지’로 다루고 있다. 육화된 생명력을 불어넣는 에너지의 상징으로 내담자는 버드나무를 육체에 이미지화하면서 여성적 생명력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러한 중독 내담자의 치유의 과정은 치유의 에너지를 담고 있는 버드나무의 상징성으로 종교적 측면과 민속학적, 신화적 측면으로도 이미지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과 생명의 여성적 에너지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버드나무의 치유의 상징이 필요했으리라 여겨진다. 물에서 비롯되는 버드나무의 생명력을 통해 중독의 아니무스를 치유하고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자신의 육체가 원하는 것을 배우게 되며 그것은 곧 나의 영혼(soul)이 원하는 것임을 내담자는 깨닫게 된다. 이로서 그녀의 신체는 의식화를 통해 그전에 그녀가 일방적으로 자신과 연결하려 분투하였던 ‘신’ 즉 ‘자기(Self)’를 진정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은 무리지는 원형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인격의 깊은 기반으로써 전체성을 의미하며 의식과 무의식을 받아들이고 자아를 초월한다.

현대여성들이 부정적 아니무스의 투사를 거두어들이고 자기 마음속의 남성적 요소를 인격속에 통합시키는 것이야말로 내면의 과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화 속의 ‘유화’도 우드만 사례속의 ‘그녀’도 그녀들의 아니무스를 의식화하고 통합하여 영과 육체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였을 것이다. 소외와 버림받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통합적인 삶으로의 여성성을 재발견해내는 그녀들의 분투에 진정한 찬사를 보낸다.

참고문헌

- 노성환 (1995). 한일왕권신화. 울산대학교 출판부.
유성호 (2006). [이 책이라면] 성찰의 지혜를 담은 나무들의 이야기. 기독교사상, 50(5), 84-89.
유치환 (1964/1984). 나는 고독하지 않다. 서울: 정음사.
이나경 (2015). 산: 개성화를 인태하고 있는 모성 상징성. 상징과 모래놀이치료, 6(1), 55-68.
이병한, 이영주 (2009). 당시선(唐詩選).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부영 (1995). 한국민담의 심층분석. 경기: 집문당.

- 이부영 (2001). *아니마와 아니무스*. 서울: 한길사.
- 이부영 (2002). *자기와 자기실현*. 서울: 한길사.
- 이상희 (2004).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제3권*. 서울: 넥서스BOOKS.
- 이시진 (1590/2018). *본초강목*. (민족의학연구원 역). 서울: 문사철.
- 이창복 (1982). *대한식물도감*. 경기: 향문사.
- 이윤희 (2004). *한국 설화의 버드나무 상징성 연구*. 한양대학교 출판부.
- 이현옥, 구양숙 (2012). 조선후기 미인화에 표현된 얼굴의 미적 특성.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4(6), 918-927.
- 임봉구 (1986). *한국농촌마을 정자목 공간의 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도전 (1397/2009). *삼봉집 제1권*. (장병철 역). 서울: 한국학술정보.
- 장미경 (2013). Analytical Psychological Meaning of Masks in the Hahoe Pyolshin Gut Tal(Mask) Play Dance in Korea. *상징과 모래놀이치료*, 4(1), 16-20.
- 장미경 (2017). *분석심리학적 모래놀이치료*. 서울: 학지사.
- 최혜영 (2008). 버드나무 신화소를 통해 본 유라시아 지역의 문명교류의 가능성 혹은 그 쟁점. *동북아역사논총*, 22, 187-217.
- 현용준 (1980).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서울: 신구문화사.
- Edinger, E. (1972/2016). *자아발달과 원형(Ego and archetype)*. (장미경 역). 서울: 학지사.
- Tresidder, J (2000/2007). *상징이야기*. (김병화 역). 서울: 도솔.
- Jung, C. G. (1963/1989). *Mysterium coniunctionis*. CW 14. Bollingen Series XX.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ung, C. G. (1984/2001). *Grundfragen zur Praxis*. Princeton: Bollingen/Princeton University Press. (Trans. into Korean in 2001 by Jung Institute of Korea).
- Jung, C. G. (1984/2002). *Archetyp und Unbewusstes*. Princeton: Bollingen/Princeton University Press. (Trans. into Korean in 2002 by Jung Institute of Korea).
- Jung, C. G. (1985/2006). *Heros und Mutterarchetyp*. Princeton: Bollingen/Princeton University Press. (Trans. into Korean in 2006 by Jung Institute of Korea).
- Jung, C. G. (1984/2004). *Persoonlichkeit und Ubertragung*. Princeton: Bollingen/Princeton University Press. (Trans. into Korean in 2004 by Jung Institute of Korea).
- Jung, C. G. (1985/2004). *Erlosungsvorstellungen in der Alchemie*. Princeton: Bollingen/Princeton University Press. (Trans. into Korean in 2004 by Jung Institute of Korea).
- Kast, V. (1994). *Father-Daughter, Mother-Son: Freeing ourselves from the Complexes that Blind us*. Seoul: Purme Publishing Co. (Trans, into Korean in 2010).

Neumann, E. (1973). *The Child Mutter*. Boston, MA: Shambhala.

Neumann, E. (1974). *Die Grosse Mutter*. Dusseldorf: Walter. (Trans, into Korean in 2007).

von Franz, M-L, (1981). *Pure aetemus*. Munchen: Sigo Press.

Woodman, M. (1990). *The Ravaged Bridegroom*. Toronto: Inner City Books

Web sites

“그녀가 나와의 스킨십을 시도한 이유.” 채널예스. 2015년2월3일 수정, 2017년11월5일 접속,
<http://m.ch.yes24.com/Article/View/16861>.

“버드나무.” 캐릭터클럽. 2016년7월8일 수정, 2017년11월5일 접속, <http://blog.naver.com/9010096?Redirect=Log&logNo=50>.

“이창복, 버드나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5년 수정, 2018년3월2일 접속, <http://encykorea.aks.ac.kr/>.

“양평두물머리, 이야기 속으로.” 산 이야기. 2018년6월12일 수정, 2018년9월11일 접속,
<https://blog.naver.com/singleway/221297493561>.

“화성, 방화수류정.” 2014년6월20일 수정, 2017년11월3일 접속, <http://blog.naver.com/kairai?Redirect-ghktjd>.

“대청호 로하스길 버드나무.” 2016년2월12일 수정, 2017년11월10일 접속, <http://photo.naver.com/view/2012000812502858386>.

“버드나무껍질의 효능.” 군위대추 화계농원. 2014년4월5일 수정, 2017년10월20일 접속,
<http://blog.naver.com/pshkt3076?Redirect=Log>.

“버드나무 수꽃과 수꽃 봉오리.” 약초도감. 2000년3월28일 수정, 2017년10월20일 접속,
<http://terms.naver.com/entry.nhn?dicId=1995312>.

“정진희, 버들가지를 든 관음보살-양류관음.” 범보신문. 2017년7월12일 수정, 2017년10월30일 접속, <http://www.beopbo.com>.

“박상진 교수의 나무이야기.94.” 영남일보. 2001년3월5일 수정, 2017년9월29일 접속,
<http://www.yeongnam.com/renew/common/printPage.jsp>.

“신윤복의 풍속화.” 고재환, 여행을 떠나요. 2016년7월2일 수정, 2018년3월5일 접속,
<http://blog.naver.com/jawoh?Redirect>.

“늘어진 버드나무 아래에 서 있는 여자.” 프랑스 국립 박물관 연합(RMN). 2017년12월1일 수정, 2017년12월11일 접속, <http://terms.naver.com/entry.nhn>.

“#약초#버드나무#버들강아지.” 산삼나라. 2017년4월23일 수정, 2017년12월5일 접속,
<https://blog.naver.com/yanjinet/220990340515>.

권미라 / 여성적 생명력을 담은 치유의 상징: 버드나무

“버드나무의 겨울 잔가지 비교.” 약초도감. 1995년3월12일 수정, 2017년10월20일 접속,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95312>.

투고일 : 2019. 04. 30
수정일 : 2019. 06. 18
게재확정일 : 2019. 06. 28